社 說

장애인 분리주의식 교육 벗어나야

이번 9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장애인 '특례입학제도'가 첫 시행되었다.

장애인 특례입학제도란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에게 특별전형을 거쳐 정원 외의 입학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지를 교육부에선 '장애인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및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31조, 교육법 제9조)를 보장하기 위한 평등조치 차원에서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러한 취지 하에 각 대학에 권고 사항으로서 제도 도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었다. 그 결과 이번 대학입시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4년제 대학은 우리 학교를 비롯한 연세대, 서강대 등 6개 대학이다. 이렇듯 저조한 도입율을 보인 이유는 각 대학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부족과 시설 확충에 대한 재정 부족 그리고 장애인의 입학을 꺼려왔던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요인 등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 학교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도입한 학교의 선택은 파감한 행동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대외적인 이미지메이킹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제도도입에 대한 후속조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학교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너무 미흡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학문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번 우리학교에 선발된 특례입학 장애자들의 장애유형은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장애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그 장애 유형에 따라 문자인식기, 점자프린터, 수화 가능자, 휠체어(계단식이 아닌 진입 비탈길)장치 등의 편의시설과 학교서적이나 여타의 교양서적의 점자출판이나 구입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시설의 확충이나 지원들을 시행하기엔 여러가지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가 없음에 상당부분 기인한다는 것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장기적인 계획안이라도 마련되어야 하고, 장애자 전용 화장실의 설치 등 현재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는 현상은 개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분리주의식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체도는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열악한 교육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특례입학제도가 오히려 장애인들의 소외감을 확대시키고, 분리주의식 교육을 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대학과 정부의 배려와 책임감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충분한 논의와 준비 필요한 '로스쿨'

사법계에 대한 정부의 개혁의지가 확고해 보인다. 그간 대표적인 권력지향형으로 알려져온 법조계의 공공연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지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것은 이제까지 사법계가 휘둘러 온 전횡의 정도가 어느만큼인지를 단적으로 얘기해주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외국에 비해 과다한 변호사 수임료는 물론 절대수가 부족한 변호사 인력과 젊은 판검사에 대한 낮은 신뢰도, 그리고 이미 고시원 정도로 전락해 버린 법과대학의 실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의 개편방향도 이러한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는듯 하다. 사실상 청와대 정책기획 수석실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편내용의 커다란 줄기는 법학교육의 개선과 사법시험제도의 개혁으로 정리되는데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른바 로스쿨이라고 불리는 3년제 법과대학원의 신설안이다.

법학교육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인 로스쿨에서는 전문적인 법조인을 양성하고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등 이전의 비정상적인 암기식 선발제도를 지양하고 있어 그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겠다.

하지만 우리는 로스쿨 제도가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면서도 제도의 적용과정에서 최대한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10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정부는 전국 5대 도시에 로스쿨을 설립하고 오는 99년부터 변호사 자격시험을 도입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중 서울에는 많게는 3~4개, 적게는 1개의 로스쿨을 설립할 예정이어서 참여가 불확실한 대학의 법학과는 존폐의 위기에 몰리게 될 전망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다수의 지지아래 추진되는 제도에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이 시기상조일 수도 있으나 정부가 계획하는 로스쿨이 기존의 법과대학에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립이나 제한된 특정대학에 한정되는지의 여부는 대학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파문의 징후는 이미 요 며칠 사이에 증폭되어 왔다. 서울대가 로스쿨제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지 얼마 안되어 연세대 등 서울에서만도 6~7개 대학이 저마다 로스쿨 설치를 공식화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는 것은 각대학이 느끼는 위기의식의 정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사법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내던 시기로부터 각 대학의 공식화 시점까지의 기간이 불과 한달여에 불과했던 것을 보면 교육내용 등의 충실함은 고사하고 태대학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교육지책이었음을 알게 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기왕에 실시되는 새로운 제도가 각 대학간의 과열경쟁을 부채질 하거나 국립대학원 형태의 독점체제를 답습하는 형태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개혁의 주된 방향이 독과점화 되다시피한 법률시장에 자유경쟁체제를 형성시키고 이를 통해 과다한 수임료 등 각종 폐해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점에 있다는 것을 되새길 때 정부가 내놓는 최종안은 모두가 인정할 수 있고 그 부작용의 폭이 최소화 되는 지점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최선의 방안이 나올수 있도록 정부와 법조계, 학계간의 충분한 논의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뛰어라, 신세대!

시론 신세대의 위기관리능력과 의사결정력

이 지 훈
〈대학원 박사과정 경영학〉

새로운(新)것에는 늘 불안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재의 갈등과 함께 수용해야 하는 새로운 것에 대한 선택적 의사 결정이 따르게 마련이다.

요사이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용어가 유행어처럼 언론에 등장하는 차에 그 세계화의 주역이 되어야 할 우리의 소위 신세대들의 위기관리능력과 의사결정력에 관해서 모든 흥미를 느끼게 되어 몇 자 적고자 한다.

신세대라 함은 기성세대에 반(反)하는 말로서 쉽게는 젊고 어린 연령층을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신세대의 특징으로는 개인주의, 독특한 개성, 컴퓨터 문화, 창의성,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 미래의 희망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들의 개성과 특성은 늘 신·구세대간 갈등의 희망섞인 우려를 낳고, 전통적인 민족독창성에 역행적인 것으로서 상당부분 부정적 이미지로 상징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이러한 우려와 불안이 결코 이들의 무지와 무능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신세대의 잠재력 있는 특성과 그들 나름대로의 위기관리능력이 항상 기성세대에 뒤진다고 보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의사결정의 특성

이들의 의사결정에는 몇 가지 새로운 특징이 있는데 첫째, 문제의 복잡성을 상당부분 단순화시켜 버리며 둘째, 과거의 관념적이고 일반화된 결정기준을 과감히 탈피하며 세째, 경험보다는 창의성에 의존하며 네째, 집단주의 경향을 개성으로 대체하고 다섯째, 의사결정의 즉시성을 선호하며 여섯째, 위험(risk)및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이중성을 갖게 되는데 무모하리 만큼 과감하면서도 여성적인 소심함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는 겪어온 생활과 환경적 요인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신세대에게는 기성세대에 비해 제도적 교육의 기능과 영향이 그 절대성에 있어 감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세대의 책상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장치되고 연결된 컴퓨터가 친구처럼 늘 가까이 자리잡고 있다. 이는 이들에게 매우 영향력이 있고 한편으로는 절대적이기까지 하다. 여기에는 컴퓨터에 의한 정보수집 및 처리능력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너지효과 기대

복잡하거나 끝치 아픈 문제는 여러 가지 변수와 함께 어느 정도의 오차를 무시해버린 통계기법으로 단순화하면서 자신의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는 것이다.

이는 극히 개인적이며, 편의적인 방법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보편적 논리와 때론 철학까지 내포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일방적인 우려와 불신은 오히려 이들에 대한 개성의 고립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볼 때, 사회적 문제로의 확산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미래 세계화의 주역인 신세대가 그들의 잠재력과 특성을 극대화 시킬 때, 세계적 보편성과 민족적 독창성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시너지(Synergy)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불안감은 오히려 기성세대에 대해 신세대를 이해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부정하고 개조시킬 것인가의 선택적 의사결정 문제를 안겨주고 있는 듯 보인다.

국제화와 현지화 그리고 세계화에 이르는 우리의 발전신행과정에서도 그렇듯이 현재의 기성세대도 결국 과거엔 신세대였다는 당연한 사실 앞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안다.

신세대의 이러한 의사결정에 대한 특성이 늘 불안해 보인다 해도 이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오히려 위험성(불확실성)을 덜 수 있는 보다 발전된 하나의 의사결정 기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가능성 그리고 희망.-바로 이러한 결론이 우리를 지금 세계속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기초가 되는가 싶다.

무한한 잠재력

요사이 생산직이나 전문직에서 조차도 3D현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매일 언론을 통한 신세대 사고방식에 대한 성토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 사람은 결국 맞물려 변화하게 마련이다.

과거에 통하던 우리의 선택적 사고가 지금은 동일시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그렇게 바란다는 사실이 더욱 무모한 선택일 뿐이다. 직업선택에도 마찬가지이다.

세상이 변하면 사고(思考)도, 사람도, 당연히 변화해야 한다. 그러기에 새롭다는 신세대와 새로운 의사결정의 사고와 기법이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개인주의와 개성 그리고 컴퓨터와 무한잠재력.

이러한 변수들을 적극 활용하고, 제3의 환경적 요인들을 위기관리 차원에서 적용한다면, 사회적 갈등과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는 미래지향적 의사결정이 강화되리라 본다.

그러고 오차를 무시한 통계치나 기계화에 대한 지나친 맹신보다는 인적(人的)사고(思考)의 효율성과 조직및 환경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에너지 결합적 의사결정'이 미래형에 적절하리라 생각해 본다.

월요포커스 ③ 총장공관

내외빈 접대공간으로 이용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붙은 사범대 갈래길, 우리학교 분한 의견들을 접해왔다. 그곳에는 사냥개 수십마리가 있어 접근할 수 없다든지 넓은 홀에 휘황찬란한 상들리에가 있다든지 심지어는 북한의 만경대처럼 꾸며져 있다는 등의 말이 그것이다. 이 말들은 대부분 고창산 정상에서 총장공관을 바라보고 온 학생들에 의해 전해진 말이다.

본관 서북쪽 언덕위에 자리잡고 있는 공관을 오르는 길에서 기자를 제일 먼저 반긴 것은 개 짖는 소리였다. 경비가 삼엄하다고 느낄만큼 많은 개들이 짖어댔다. 공관 입구에서부터 약 5m 간격으로 발견된 개가 여덟마리. 세명의 관리인이 교대로 관리하고 있다.

공관은 지난 1968년에 건설된 건평 2백40평에 3층짜리 건물이다. 학교설립초기에는 당시 총장이었던 조영식 학원장이 출퇴근을 하지 않고 집무를 보는데 쓰여졌다. 그러나 현재는 총장개인 집무실이라기보다 학교공식 내외빈을 접대하고 동문회, 회의 등을 진행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총장뿐만 아니라 학원장, 부총장 등이 회의나 귀빈 초청이 있을 때 수시로 사용한다. 지난 3월 1일 사하공화국 대통령 접대를 위해 사용한 것이 가장 최근의 일이다. 그리고 오늘 호주 뉴 사우스웨일즈대 총장과의 오찬이 있을 예정.

봄에는 벚꽃, 개나리, 진달래, 목련 등이 피고 고창산 중턱에 있는 관계로 학교 전경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전망좋은 집이다.

베일에 싸인 것은 그 실체가 어떻든 과대포장되기 마련이다. 총장공관도 일반학생에게 공개되지 않아 왔다. 때문에 몇몇 호사가들에 의해 마법의 성처럼 포장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전채연 기자〉

(고) (황) (만) (평)

"너희가 문민을 믿느냐"

일상의 평범을 거부하고 세계속에 뛰어들어 자신의 꿈을 이룩한 大韓國人 최계월의 불꽃같은 인생드라마

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

권태하 실명소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옛 보르네오)에 경상북도만한 정글을 개척, 원목·조림사업을 하는 한국인을 아는가. 인간 자체해 마두라지역에 횃불을 밝히고 『産油 한국』의 국가적 과업에 마지막 승부를 거는 사업가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동경 시청 낮에는 야쿠자의 두목들을 휘어잡고 밤이면 일본 정계 거물들과 천하대세를 논했던 통 큰 사나이. 서슬퍼런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결습사관(소위) 임관식을 앞두고 「나는 이 전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가게와 배짱의 사나이. 일찍이 수카르노·수하르토 등 인도네시아의 권·현직 대통령, 기시·사토·미키·후쿠다·스즈키·다나카 등 일본 역대 수상들과 맺은 교분을 바탕으로 이미 수십 년전 사업의 영역을 국제무대로 넓힌 세계인 최계월. 이제 그가 바쁜 일상속에서 자꾸만 왜 소해지는 우리들에게 뜨거운 메시지를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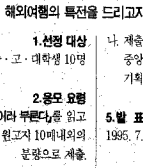
崔桂月을 보면 1천년전에 아시아의 무역을 제패한 歷史의 巨人, 張保皐의 살아있는 쾌보를 보는 듯했다.
-月刊朝鮮 嚴智道 기자-

칼리만탄 하늘에서 太陽을 타고 내리쬐는 한국인의 情이여.
-극작가 韓靈史-

칼리만탄에 기적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조국에는 영광, 「양국에는 우호」를 이룩했습니다.
-前 동자부 장관 이봉서-

그대 우리 한국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형하려면 칼리만탄 코네코로 오라.
- KBS PD 강대택-

中央日報社 신국판 / 상 254쪽, 하 259쪽/ 각권 5,000 원/ 판매 751-9468



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

독서감상문 공모

中央日報社는 21세기의 주인공이 될 젊은이들에게
세계화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독서감상문 모집을 통한
해외여행의 특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1.선정 대상
중·고·대학생 10명

2.응모 요령
『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를 읽고 느낀 점을 2백자 원고지 10매내외의 분량으로 제출.

3.당선자는 오는 8월중 8박 9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옛 보르네오)지역의 산업현장 견학 및 관광.

4.응모기간 및 제출처
가. 응모기간: 1995. 3. 15~ 6. 30
나. 제출처: 서울시 중구 순화동 7번지 중앙일보사 출판본부 기획출판 1팀 독후감 담당자 앞.

5.발 표
1995. 7. 10일頃 개별통지함.

6.기 타
가. 원고 끝에 응모자의 주소(학교이름), 성명, 전화 번호, 생년월일을 필히 명기할 것.
나. 원고와 함께 책 끝부분 판권 페이지를 오려서 동봉할 것(상·하 2페이지).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처로 문의할 것.
☎ 751- 9313

中央日報社